

해남군, 복합뮤지엄파크 만든다

고산 윤선도유적지 인근 연동리에 역사관·미술관 갖춰 랜드마크로 350억 들여 2025년까지 건립

해남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해남군은 민선 8기 문화예술분야 중점추진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해남읍 연동리에 해남역사관과 미술관, 야외공원 등을 갖춘 '복합뮤지엄파크'를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온 미술관과 역사관 등을 조성, 해남의 유무형 문화예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전시하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이다.

역사박물관은 해남에서 발굴된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전시·연구하며, 미술관은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보관·기획·전시하게 된다. 야외시설은 문화역사 놀이와 체험을 즐기고, 정원과 전시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복합뮤지엄파크가 들어설 장소는 해남읍 연동리로 이곳에는 호남 예술의 뿌리인 고산 윤선도유적지는 물론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 문학의 집, 고산유물전시관 등이 소재해 있어 해남 문화예술 시설이 집약된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 군은 군의회와 지역문화예술인, 역사학자를 비롯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

성사업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해남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오는 9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군은 앞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품 및 유물 목록 확보 등을 거쳐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들어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미술관과 역사박물관이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각계 전문가는 물론 해남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남문화예술의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임태면 기동마을 삼거리 담벼락에 그려진 노부부의 동백꽃 피마 머리 벽화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익사이팅 1004 아일랜드 챌린지 여행프로그램' 개발

신안군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섬의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글로벌 익사이팅 1004 아일랜드챌린지 여행프로그램' 개발·진행에 나섰다.

군은 이번 여행프로그램 개발을 최근 한류 관광이 단순 여행이 아닌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교감하는 등 특색있는 지역 관광으로 바뀌어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총 7개의 챌린지 프로그램은 ▲12사도 순례길 아일랜드챌린지 ▲퍼플 아일랜드챌린지 ▲엘도라도 아일랜드챌린지 ▲힐링 아일랜드챌린지 ▲샌드 아일랜드챌린지 ▲찰인3중 아일랜드챌린지 ▲독실산 트레킹아일랜드챌린지 등 글로벌 대상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30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10여국 30여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

좌면 퍼플섬, 증도면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길,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와 무한의 다리에서 아일랜드챌린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2사도 순례길 아일랜드챌린지는 증도면의 넓은 갯벌위에 놓여진 섬 4곳(대기점도·기점도·소악도·진섬)을 노드길로 연결해 하나의 순례길로 완성된 12개의 작은 예배당의 스토리를 체험하며 미션을 완수해가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외국인인은 "섬 곳곳에 숨어있는 순례자의 흔적을 찾는 탐험 프로그램, 퍼플섬에서의 버스킹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무한의 다리 체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안 섬의 유쾌한 매력을 만날 수 있었고 글로벌 여행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김·다시마 등 완도 수산물 미국서 판매

LA서 수산식품 판촉전

김, 다시마 등 완도산 수산물이 미국에서 판매된다.

완도군은 오는 16일까지 미국 대형 유통 체인인 한남체인 내 전남도 상설 판매장에서 '2022 전남도 완도군 수산 식품 해외 판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판촉전은 미국 LA 한남체인 플라분점과 토렌스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판촉전 개최를 위해 군은 전복 볶음밥과 냉동 전복, 해조 컵 국수, 김, 다시마, 미역 등 약 11만 불 어치 물량을 수출했다.

판촉전에 참가한 기업은 누리영어조합법인, 완도사랑S&F, 완도바다식품 등 3개소이다.

참가 기업은 완도군이 주최한 '가정간편식 온라인 수출 상담회'와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 상담회'에서 미국 현지 바이어가 직접 선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완도산 수산물로 만든 가정 간편식이 LA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지난해 미국 한남체인에서 진행된 완도군 수산식품 판촉전 모습. <완도군 제공>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북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완도군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진성 바이어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도 특산품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

히 해외 판촉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미국 동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판촉전을 진행, 약 9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널본부장 ejhung@

"브랜드 명성 높이자"... 영암군, 저품질 무화과 208t 수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영암군이 무화과 본격 출하 시기를 맞아 저품질 무화과 시장격리(수매)를 상호농협에서 실시한다.

무화과 시장격리 지원 사업은 8일부터 31일까지다.

상품성이 떨어진 병든 무화과(병과) 수매로 영암 무화과 브랜드 명성을 높이고 병과 무단투기를 방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시장 격리 무화과는 영암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대불수처리장의 미생물 원료로 쓸 계획이다.

이번 단가는 1kg당 1200원이며, 총사업량은 208t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장격리를 통해 병과 무화과가 하천 등에 버려지고 방치되는 행위를 막아 환경오염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 선정

국비 4800만원 확보

목포시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8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치매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친화적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확산을 도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목원동, 유달동 등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선정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다시, 정춘 GO!' 프로그램과 자서전 출판 기념회, 인지기상교실 등을 운영하고 전시회와 음악회, 작은 영화제 등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목포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확보된 국비 예산을 통해 '치매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함께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태극기 바로알기 특별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광복 77주년을 맞아 태극기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재 태극기 바로알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은 오는 16일까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컨벤션동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시대순별로 나열한 태극기 17점을 통해 태극기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기념관은 18~25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일상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사업 31일까지 신청

영광군은 202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군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에서는 이전까지 군 정책사업 위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주민숙원사업 위주 사업에 선호함에 따라 민선8기 강동준 군수 취임 공약인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 정책사업 외에 읍·면 지역사업을 총액 20억(읍면별 분배) 한도내로 확대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읍·면 지역사업에 대한 결정 또한 읍·면별로 자

체 구성된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 심의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군에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참여방법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각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읍·면 순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